

여러분께,

출국 전 제반 의견 공유합니다.

1) 김은정 매니저님,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보 고맙습니다. 24일 심사위원의 동선에 대해서도 추후 파악하면 알려 주세요. 큐레이터들이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겠네요.

2) 큐레이터분께, L&B에 다시 문의해보니 도록, 리플렛, 가방 등 모든 홍보물이 24일 전시장에 도착한다고 합니다.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는 현지 통관에 따라 유동적입니다. 23일 오후에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심사위원이 오기 전에 준비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.

-리플렛 50부, 프레스 홀더 20, 가방 10 -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

-3진(신은기, 안기현), 2진(김승범, 정이삭, 김성홍) - 가능하면 4-5권씩 도록을 가져갑니다. 준비하여 출국 공항에서 배분하도록 하죠.

3) 정이삭 소장님, 영상은 조율하셔서 마무리 하시죠.

4) 변서영 대리님 임수연 부장님, 스타팔리아 리셉션시 음악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네요.

이상입니다. 출국 전에 다시 공유할 내용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.

김성홍드림